

제 15회 공동육아포럼

**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책임지는 회의문화**

2021년 7월 3일 토요일 10:30-12:30

온라인 참여(zoom)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일 정

- 일시 : 2021년 7월 3일(토) 10:30~12:30
- 장소 : 온라인 참여(zoom)
- 주제 : 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책임지는 회의문화

사회 : 이송지((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컨설팅사업단장)

시 간	진 행	내 용
10:30~10:40	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에 대한 기대 나눔 ▪ 포럼의 배경과 목적, 진행 안내
10:40~11:00	대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방 대화 주제: 회의할 때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 전체 공유
11:00~11:20	기조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에서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문화 만들기 / 김수정((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컨설팅사업단)
11:20~12:00	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웠으니 써보야지 - 통통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남도연(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운영위원장) ▪ 회의를 왜 해야 하는가를 찾다 - 통통어린이집 교사회 / 이현주(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원장) ▪ 회의를 잘하고 싶었어 - 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 오달빛(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교육이사) ▪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 해와달어린이집 교사회 / 김기나(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해와달어린이집 원장)
12:00~12:10	질의응답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문화 연구, 회의모듈,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제안
12:10~12:30	닫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방 대화: 소감 나누기 ▪ 전체 마무리: 포럼 돌아보기

차 례

여는 글

우리의 암묵지를 시스템으로.. / 전주리	9
------------------------------	---

기조발표

공동체에서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문화 만들기 / 김수정	13
--	----

사례발표

배웠으니 써봐야지 - 통통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남도연	27
회의를 왜 해야 하는가를 찾다 - 통통어린이집 교사회 / 이현주	31
회의를 잘하고 싶었어 - 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 오달빛	37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 해와달어린이집 교사회 / 김기나	44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소개

설립목적 및 조직도	55
연혁 및 주요 사업	56
컨설팅사업단	58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	59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선언	60
어린이 행복선언	61
보육권리선언	62

연극 글

우리의 암묵지를 시스템으로..

전 주 리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여러분은 어떤 회의를 해 보셨나요? 만족스러운 회의는 어떤 것일까요? 민주적인 회의라면 모두가 만족할까요? 모두 참여하게 한다면 만족할까요?

회의는 우리에게 오랜 화두이자 숙제입니다. 특히 공동육아처럼 회의가 많은 조직에서 운영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잘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목소리 큰 누군가에 의해 분위기가 휩쓸려가지는 않을까, 회의에 꼭 와야 하는 당사자가 와 줄지.. 그렇게 고민을 거듭해서 준비해도 막상 닥친 회의는 예상외의 방향으로 흘러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회의결과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회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회의에 관해 정식으로 마주하고 고민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세심한 방법으로 회의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동육아는 관계와 일을 함께 하는 결사체이니깐요. 양육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함께 하고 아이의 돌봄과도 관련된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결정이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회의해서 결정했지만 그 회의의 결정에 따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과 관계가 섞여 있다는 것은 공과 사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식적인 결정에는 일정한 틀이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게 얘기해도 어렵고 너무 딱딱해도 어렵습니다. 이에 맞는 적절한 회의의 형식을 만든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공동육아 초기에는 만장일치를 지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너무

긴 회의는 힘들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를 지향하더라도 멈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자르지 않지만 한 사람의 말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예민한 사안일 때는 모두가 순서를 돌아가며 일정 시간동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각 현장마다 암묵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각 현장의 회의문화 중 시스템으로 남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좋은 문화는 모두 암묵지들이라 좋을 때에 시스템으로 잘 남겨두어야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합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2020년부터 25년까지의 2025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 조합의 혁신방안으로 회의문화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인의 컨설팅사업단은 2020년 회의문화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장들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고민을 보충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육아의 많은 것들이 연구와 실천의 순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육아의 회의문화도 현장과 법인이 함께하고 연구와 실천이 어우러져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연구와 포럼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조발표

공동체에서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문화 만들기

김 수 정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컨설팅사업단

1. 2020년 회의문화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 회의문화
2.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민주적 회의문화

III.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회의문화의 조건

1. '공동육아'에서 회의문화의 특징
2. 새로운 조직문화를 위한 회의의 조건들
3.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

IV. 참여적 회의 모듈의 개발

1. 회의 모듈 개발 과정
2. 참여적 회의를 위한 회의 모듈의 요소
3. 회의 모듈 실습 및 평가
4. 결과

V. 결론 및 제언

VI. 참고 문헌

2. 회의문화 연구 과정



- 이론 연구에서는 조직의 위기 상황과 조직문화로서 회의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
- 8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회의문화의 필요 요소 추출 및 전략 설계
- 각 전략의 의미 탐구 및 실행을 위한 도구 개발
- 회의 순서에 맞게 도구의 배치를 통해 회의 모듈 완성
-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회의문화를 점검 및 변화시키는 기회가 됨

✓ 회의 모듈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문화적 돌봄, 제도적 접근(회의 틀 제안)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에 대한 동의, 슬로건 및 구체적 전략에 대한 이해 필요

회의 매뉴얼	회의 모듈
세밀하고 명확한 지침 강제적, 지시적, 위에서 아래로 응용하면 안 됨. 원칙대로 적용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한 도구 동의, 안내의 과정 응용 가능, 의미 이해가 더 중요

〈회의 매뉴얼과 회의 모듈의 차이점〉

3. 공동육아 회의문화의 특징

(1) 개방성 :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열린 공동체와 열린 연대를 위한 몇 가지 준거들>

공동육아에서 회의란? “~~의 장이다.”

포용

열림

자기표현

자기성찰

상호 이해

당위성

절차성

✓ 열린 공동체와 열린 연대를 위한 몇 가지 준거들

- 포용의 장 :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교육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 열림의 장 : 모든 구성원들이 논의와 활동과정에서 성, 계층, 지역, 장애의 차이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는 열림의 장입니다.
- 표현의 장 :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표현성은 구성원끼리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 자기성찰의 장 :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변화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기성찰의 장입니다.
- 상호 이해의 장 :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생각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모습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절차성과 당위성 : 모든 진행과정은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2) 작고 유연한 회의 구조



(3) 다수결과 만장일치



(4) '회의'라는 이름의 생각과 정 나누기



(5) 갈등, 변화와 성장을 위한 힘



(6) 아이들의 '모듬'으로 이어지는 회의문화



4. 실패한 회의를 통해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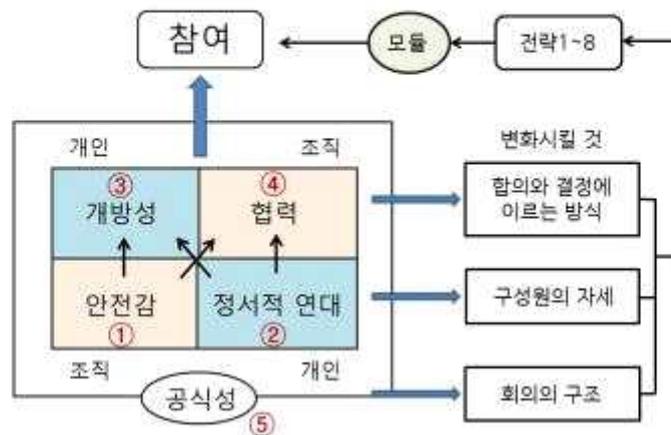
긴장감, 전투력, 회피, 주도권
 저주함, 네버엔딩스토리, 멍
 판질, 다중 생각, 뭘 결정했지?
 책임 넘기기, 반복, 불통, 답답함

왜 회의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머리 아픈 것일까?





5. 참여를 이끌기 위한 회의문화의 5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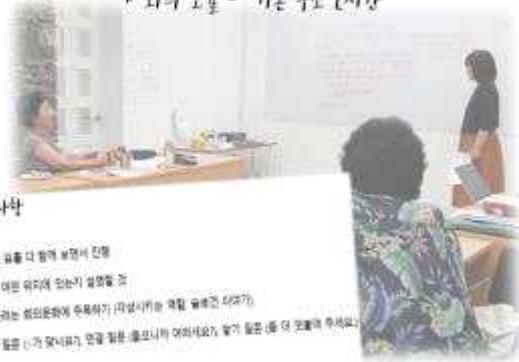


6. 실천을 위한 8가지 전략

변화의 측면	실천 전략	솔로건
회의의 구조	전략1. 목표 설정	모두가 말하고
	전략2. 규칙 정하기	
구성원의 자세	전략3. 의견의 시각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략4. 경청과 질문	
합의와 결정에 이르는 방식	전략5. 연결과 쌓기	함께 책임지는 회의
	전략6. 의미와 가치 부여	
	전략7. 역할 분담	
	전략8. 피드포워드	

7. 회의 과정과 회의 모듈 소개

* 회의 모듈 - 기본 구조 시간



• 진행자 유의사항

- ① 도출된 결정 사항을 기록 다 함께 보면서 진행
- ② 진행과정의 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것
- ③ 우리가 함께 만들어는 회의문화에 주목하기 (과실시행은 즉각 유효한 이야기)
- ④ 토론 순서, 진행 질문 누가 맞이할지, 연결 질문 (종료시켜 어의세요) 할지 질문 (종 시 연결의 추세로)
- ⑤ 논의를 꼭 의견 순서
- ⑥ 의견 확산 (다양한 의견을 내주세요. 또 되돌아오면 좋습니다)
- ⑦ 의견 정리 (의 후가되거나 덧붙었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 ⑧ 의견 전 연결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차	시간	주요내용	주요내용
1차	10:00 ~ 12:00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2차	13:00 ~ 15:00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3차	16:00 ~ 18:00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① 인사 ② 인사 ③ 인사 ④ 인사 ⑤ 인사 ⑥ 인사 ⑦ 인사 ⑧ 인사 ⑨ 인사 ⑩ 인사 ⑪ 인사 ⑫ 인사 ⑬ 인사 ⑭ 인사 ⑮ 인사 ⑯ 인사 ⑰ 인사 ⑱ 인사 ⑲ 인사 ⑳ 인사 ㉑ 인사 ㉒ 인사 ㉓ 인사 ㉔ 인사 ㉕ 인사 ㉖ 인사 ㉗ 인사 ㉘ 인사 ㉙ 인사 ㉚ 인사 ㉛ 인사 ㉜ 인사 ㉝ 인사 ㉞ 인사 ㉟ 인사 ㊱ 인사 ㊲ 인사 ㊳ 인사 ㊴ 인사 ㊵ 인사 ㊶ 인사 ㊷ 인사 ㊸ 인사 ㊹ 인사 ㊺ 인사 ㊻ 인사 ㊼ 인사 ㊽ 인사 ㊾ 인사 ㊿ 인사

1) 회의 준비

- 친절한 안내, 편안한 분위기, 안정적인 공간 마련부터 회의문화가 반영
- 여유, 편안함, 기대감으로 참여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 간식, 음악, 칠판, 매직, 포스트잇 등 기타 기자재 준비



2) 열기

* 열기 활동의 예

- 자기 소개, 느낌카드
- 지금의 몸과 마음 상태 말하기
- 배려 받고 싶은 것 등

* 열기의 의미

- 공동육아에서 일과 시작 전 현재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하루 열기'에서 따옴
- 각자 개별 상황 공유를 통한 서로돌봄 / 전체 에너지 확인
-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 현재에 집중, 참여의 시작



3) 도입 - 바탕 만들기

- * **규칙 정하기** • 모모함에 기반을 두고 환기하기
- * **전차 회의록 리뷰** • 결정과 실행에 대해서만 간단히
- * **보고** • 공유-점검-함께 책임지기 위한 것, 새로운 틀 개발 중
- * **의제 설정** • 안건은 사전 공지, 회의 의제는 논의를 통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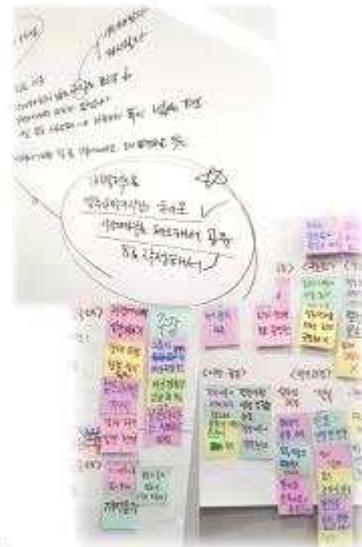
✓ 안건과 의제

- 안건 : 토의하거나 조사해야 할 사실. 사전에 공지되어야 함
- 의제 : 회의에서 의논 혹은 결정해야 할 문제. 회의에서 설정

-
- * **시각화** • 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
 - 모든 의견의 소중함
 - 의견들이 서로 연결되고 쌓이는 과정
 - 참여-모모함 실현의 강력한 도구

* 시각화와 연결-쌓기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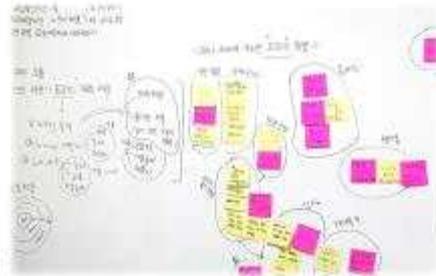
- 의제를 시각화해서 쌓고 연결하다 보면 논의의 방향이 달라짐
- 의견 확산 과정에서 의견 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
- 의견의 시각화는 인물과 의견을 구분하는 데 도움
- 확산 과정의 '으르렁 시대'를 안전하게 건너는 하나의 방법
- 포스트잇 작업은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생각의 명료화에 도움



4) 논의 - 쌓기와 연결

* 의제에 대한 정보 나누기

- 골든서클 (why-how-what) 활용
- 진행 순서: 발언 - 반영 - 질문 - 발언
- 진행자는 발언 규칙 확인하고 모모함 환기하기



* 논의 내용에 대한 가치 부여

- 공동육아 철학과 연결해 보기



* 의견 다양화 - 쌓기와 연결

- 확산 - 쌓기 - 연결 - 쌓기

5) 결정 - 기여와 서로 돌봄

* 결정

- 결정 방법 합의 및 결정
- 결정 내용 확인
- 결정 내용 실행 시 유의한 점 확인

합의의 종류와 방법 - 수렴형 합의: 공동 분모에 대한 합의
 - 확장형 합의: 개인의 관점을 넘어선 큰 그림에 합의

결정 방법 - 반사질치
 - 다수결을 할 때는 1인 1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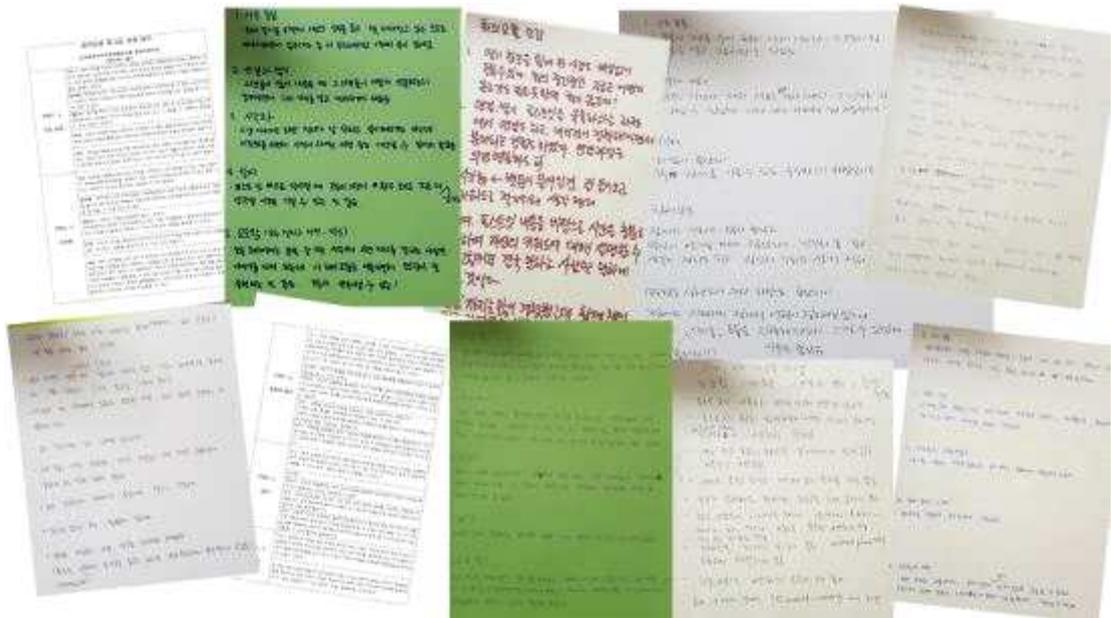
결정할 내용 - "왜-어제-어디서-어떻게-무엇"을 먼저 결정한 후
 - "누가-누를"을 결정한다.

* 조각기여

- 걱정 담기, 도움 청하기
- 피드포워드 나누기
-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 탐색

* 후속 점검 방법 논의

- 유연하게 조정하기
- 서로돌봄



✓ 회의 단위에 따른 강조점

- 교사회: 교육 목표 합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서로돌봄, 모모함 교사회 문화
- 이사회: 의제 만들기, 실행전략 구조화, 결정과 의미 부여
- 방모임: 보고, 모두 말하기, 서로돌봄, 결정과 의미 부여. 공동체 문화의 기본단위
- 소위모임: 조각기여, 피드포워드, 자료 정리

✓ 진행자 교육의 필요성

- 질문하는 사람 (질문 연습) / 구조화 하는 사람 (생기와 연결 연습) / 전체를 보는 사람 (촉진 연습)

✓ 회의를 하는 이유

- 혼자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서 "눈맞춤"
- 회의 결과는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합의와 참여를 위한 것

사례발표

배웠으니 써봐야지

- 통통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남도연

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잘 하고 있는 건가?

- 기존 회의 돌아보기 (장점, 아쉬운 점)

장점	아쉬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스럽지 않다.• 위계는 없다.•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 잠깐이라도 참여하려고 한다.•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고민함• 생각나눔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결과 공유가 매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합 법률, 재정 관련 지식 없어 판단 어렵다.• 배경지식이 다르다-설명하러다 시간이 간다.• 이전 논의가 기억 안남• 눈치보거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나• 회의 진행자의 전달 위주• 사전 준비 부족• 내가 제일 이야기 많이 함•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장점은 살리고 아쉬운 점은 개선해 보자.

네 번의 워크숍 - 1차와 2차



(워크숍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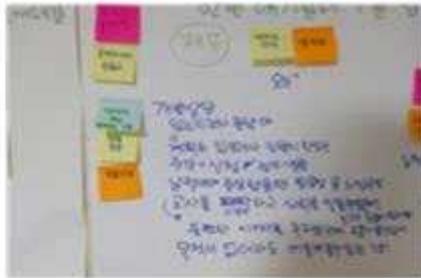
- * 찍먹과 부먹
- * 회의 모듈 그대로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워크숍 2차)

- * 보고연습 W-E-L
- * 우리의 주제로 연습해 보기
"불편한 이야기"

네 번의 워크숍 - 3차와 4차



(워크숍 3차)

- * 우리끼리 연습
- * 지난 논의 이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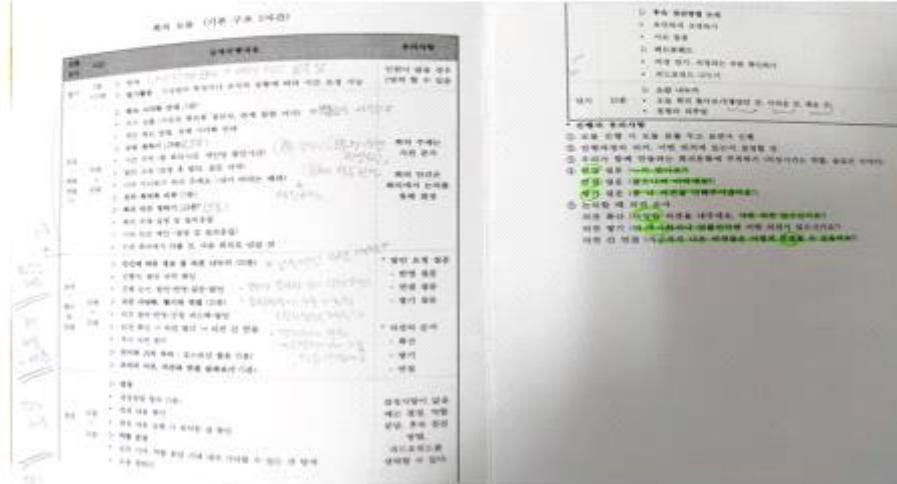


(워크숍 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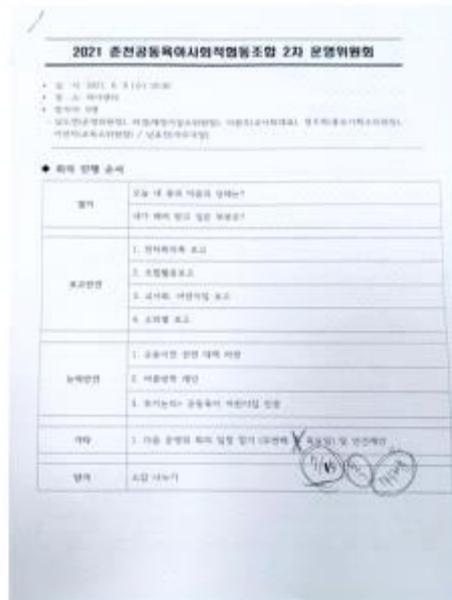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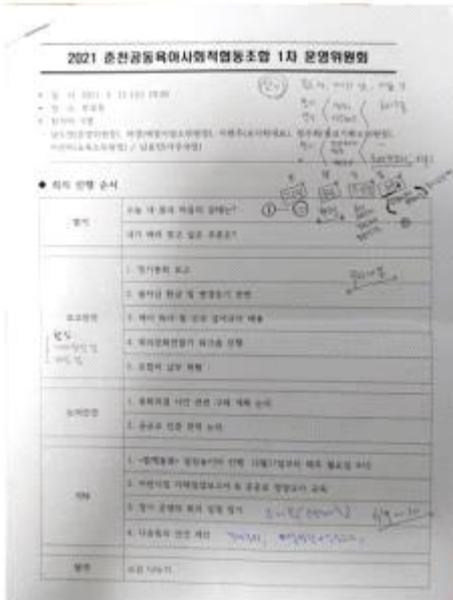
- * 실전

배웠으니 써봐야지 4회차 워크숍

• 회의 모듈 의지하기



배웠으니 써봐야지 4회차 워크숍



무엇을 남겼는가

- 서로를 보듬어주는 자리 (열기)
- 효율적인 회의 시간 사용 (규칙 정하기)
- 배를 바다로 보내주는 장치 (시각화)
- 회의 진행 서포터 (회의모듈)
- 배운 점 : 보고 (W.E.L)

다음에는 이것도

- 마인드맵 – 쌓기 연습
- 걱정담기와 피드포워드
- 조각기여

회의를 왜 해야 하는가를 찾다

- 통통어린이집 교사회

이 현 주

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통통어린이집 원장

회의를 위해 또 회의를 한다.

“무슨 일 있어?”

“응.. 회의 있어”

“맨날 회의만 하나? 무슨 회의주의자야??”

00회의, 000회의

늘 회의는 어렵고, 부담스럽다.

그런데 회의를 위해서 또 회의를 하라고??

회의를 위해 또 회의를 한다.

어떻게 회의를 하면 조금 편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길

회의를 진행하는 나만 얘기하는 것 같은 회의를 바꿀 수 있겠지?

첫 번째 워크숍 - 부먹 vs 짹먹

부먹 vs 짹먹이 뭐라고?

이것도 각자의 스펙트럼이 있다.

100%의 찬성, 반대는 드물다

모모함(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책임지는)이 된다.

한 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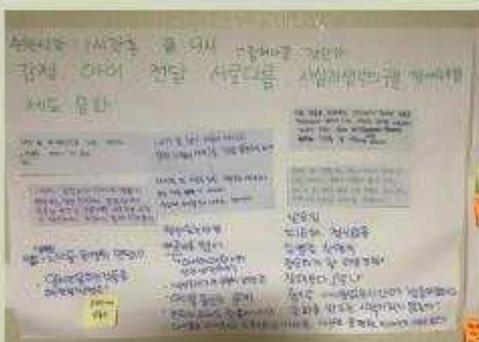
두 번째 워크숍 - 실천이다

느낌카드로 서로를 배려하는 열기 시간

한 일(Work) - 기대(Expect) - 배운 것(Learn)

불편한 이야기들도 나누는 회의 할 수 있다!!!

세 번째 워크숍 - 직접 진행



회의가 산으로 가버리면 어찌지요?

그건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거 예요.

네 번째 워크숍 - 교사회 킨회의



교사회 킨회의를 회의 모듈에 적용

회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논의를 왜 하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함.

다섯 번째 워크숍 - 운영위



보리는 역시 여유 있구나.. ㅎㅎ

할 수 있다!!

배려하는 회의

나온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회의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항구로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회의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게 되는 회의

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책임지는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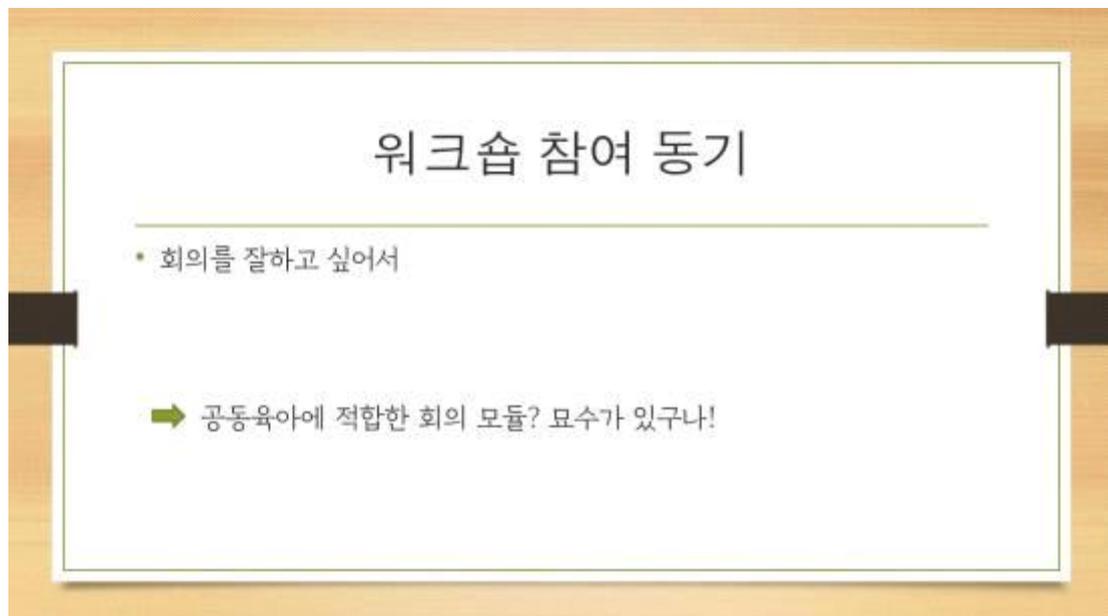
해봐야 한다!!

회의를 잘하고 싶었어

- 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오 달 빛

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교육이사



기존 회의의 문제점

- 논제? 결론?
- 다양한 의견
- 오래오래
- 말하는 사람만 말한다.
- 말 꺼내는(제안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흔하다.
- 집단의 성향,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워크숍 진행 과정 1차

- 경청 연습
- 회의 모듈 진행: 탕수육은 부먹(100)인가 찍먹(0)인가?



워크숍 진행 과정 2차

- 회의 모듈 진행: 이사를 꼭 해야 하나? 이사를 모두가 해야 하나?
 - (1) 안건의 배경 살피기
 - 이사가 힘들다. 힘들면 뭐가 힘든가 등(진짜 문제 찾기)
 - (2) 찾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각자 대책 세 가지씩)
 - (3) 실험, 실행: 효과적인 공지 전달 방법 논의 - 전체 공지 카톡방 개설
 - (4) 다음 회의 때 지난 회의 결정사항 과제 리뷰

워크숍 진행 과정 3차

- WEL 보고 형식 작성 및 시도해 보기
- 안건: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려면?
 - 회의 구성원 내 배려와 신뢰가 있으면 부담이 없다.
 - 게시판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지와 소식을 구별한다.
-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보다 연결이 중요함을 깨달음.
같은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크숍 진행 과정 4차

- 안건: 하반기 모꼬지 개최 여부
- 골든 서클 참고: '무엇, 어떻게'가 아니라 '왜'부터
 - 왜 모꼬지를 가야 하는가?
- 절충안?
-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면 의견이 힘을 받는다.
회의 모듈 진행 시 의견을 받아 우선순위와 그 이유를 정리한다.

적용해본 것

- 2차 회의 때 조합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공지하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공지 카톡방'을 개설해 보기로 함.
- 방모임 때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는 대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 포스트잇 붙이기를 적용해 봄.
 - 새로운 집단에 회의 모듈을 직접 적용했다기보다
'1인 1포스트잇'의 발언 방법만 가져와서 써본 것

좋았던 점

- 열기: 진짜 마음이 열린다.
- 의견을 나누는 과정 그 자체
- 시각화
- 의견 덧붙이기
- 이사회 원팀!

아쉬운 점

- 회의 모듈을 진행해도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다.
-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공이 많이 들었다. 특히 쌓고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진행자의 능력이 많이 요구되었다.
- 결국 탕수육 부먹 짬뽕을 제외하고는 세 번의 회의를 시간에 맞춰 끝내느라 '결정' 부분까지 못 다다랐다. 조각 기여, 걱정 담기 등이 화룡점정이라 생각하는데 못 해본 것이 아쉽다.

제언 - 1

- 새로운 회의 형식 정착을 위해 교사회, 이사회가 시청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신입교육에 공동육아 회의문화를 알리고, 방모임이나 소위모임 등을 이대로 진행해 보면 금방 자리잡을 것이다.
- 회의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회의실, 칠판, 포스트잇 등을 어느 정도 규격화하여 제시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언 - 2

- 회의 안건에 따라 '쌓기와 연결, 기여와 돌봄의 시간'에 '바탕 만들기'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듯
- 포스트잇에 적어낼 때는 키워드로 간단하게 적기
 - 쓰면서 자기 생각 정리할 수 있도록
 - 의견을 궁금해 하면서 물을 수 있도록

마치며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다.

사람 간에 신뢰가 쌓이면 어떤 의견이든 마음을 열고 듣게 된다.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이런 경험을 쌓아가는 데에 가장 좋은 문화가 아닌가 싶고 소중한 기회에 감사드린다.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 해와달어린이집 교사회

김 기 나

관악동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해와달어린이집 원장

목차

1. 워크숍의 진행방식과 내용
2.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 1차
3.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 2~4차
4. 총평

워크숍의 진행방식과 내용

1~4차

	진행방식	내용
1차	진행, 기록	기존 회의 돌아보기, 회의 모듈 소개 모두 말하기, 모두의 의견 반영하기, 함께 책임지기 마무리
2차	진행, 기록, 시각화 서기	열기 - 상태와 배려, 오늘의 규칙 정하기 보고 및 안건 정하기 논의 - 쌓기와 연결 결정 - 기여와 돌봄 마무리
3차	진행 - 참가자, 기록, 시각화 서기	열기 오늘의 규칙, 안건 정하기, 논의 - 쌓기와 연결 마무리
4차	진행, 기록, 시각화 서기 - 모두 참가자	열기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1차

기존 회의

좋았던 것

- 공유, 협력
- 성찰
- 효과성
- 다양성

아쉬웠던 것

-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
-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 되는
-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 쌓아가는, 아이디어가 많은 회의였으면

워크숍을 통해 얻은 것

2~4차

내용

돌봄/배려

- 상태 나누기
- 받고 싶은 배려
- 시간 정하기
- 규칙 정하기

모두가 만족하는

- 부모, 교사, 아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의제 설정
- 공동육아의 철학과 연결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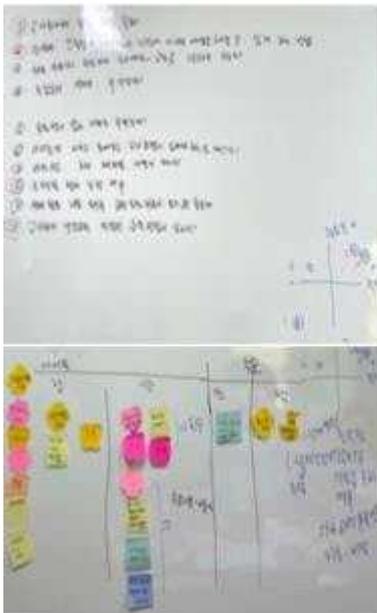
골든서클

- 왜 Why
- 어떻게 How
- 무엇을 What



포스트잇의 사용

- 모두가 참여
- 영향을 덜 받음
- 집약적으로 표현
- 범주화에 용이
- 시각화



시각화 서기

- 내용이 존재함
- 여러 의견 정리 및 전달력이 높아져
회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됨

총평

참가자/멘토

팀



나타인 돌봄이
어렵다.
혼자 다해야한
다는 부담감이
내려감.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
어서 좋다.
능동적 참여자.



배려
말하지 않는 사
람도 의견냄.



같이 책임진다.
내 의견을 명확
히 표현하는 연
습 필요.



영향을 덜 받고
내 생각 표현
시간 제약의이
중성.

멘토의 피드포워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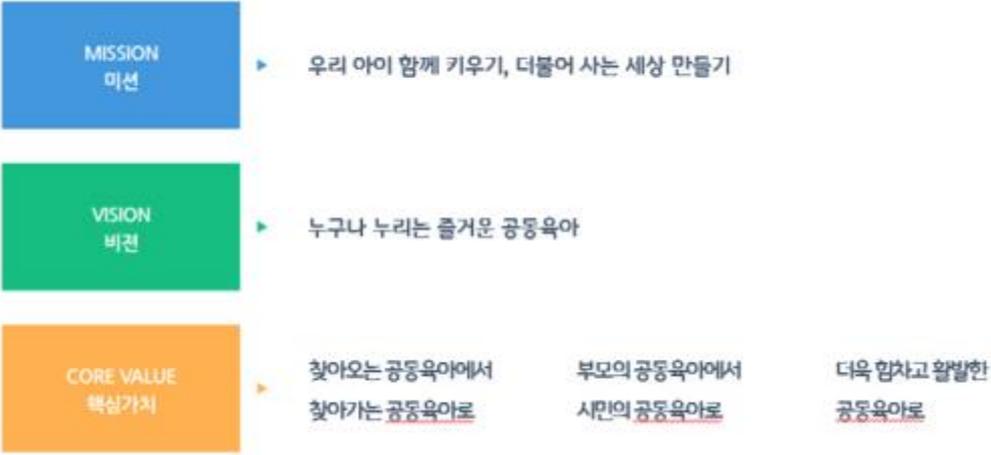
해와달 교사회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개**

설립목적

모든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육아 제도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실천하여 어린이 및 여성복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미션과 비전



조직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걸어온 길**

- 1978년 '어린이 걱정모임' 구성(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
- 1980년 '해송보육학교' 설립(4년간 20여명 교사 양성)
- 1984년 난곡 '해송유아원' 설립
- 1990년 창신동 '해송아기둥지' 설립
- 1992년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으로 재발족
- 1994년 '공동육아연구회' 설립
협동조합형 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 개원
- 1996년 공동육아 현장학교 개설
- 1998년 사단법인 '공동육아 연구원'으로 인가
저소득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해송어린이등지공동체' 설립
공동육아 협동조합협의회 결성
- 1999년 지역공동체학교 네트워크 결성, 제1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공동육아 교사협의회 결성
'도토리방과후협동조합' 설립
- 2001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으로 조직 개편, 제2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조은 이사장 취임, 황윤옥 사무총장 취임
- 2003년 박혜란, 양옥승, 정병호 공동대표 취임, 제3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 2004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 개최
- 2005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분류에 '부모협동시설' 추가, 제4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사랑시민상 여성부문장려상 수상
- 2006년 여성가족부 가정의달 국민포장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황윤옥 사무총장 수상
- 2003-06년 어린이 문화 공간 '별난 놀이터' 운영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공동운영)
- 2007년 박혜란 이사장 취임, 제5회 공동육아 한마당 개최
- 2008년 이송지 사무총장 취임
뿌리와새싹커뮤니티센터 및 공동직장보육시설 뿌리와새싹어린이집 개원
- 2009년 구립 성미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10년 제6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육아교육한마당 개최
제1회 공동육아 어린이캠프 개최
- 2011년 공동육아 다양한 모델 개발을 위한 포럼 개최
제2회 공동육아 어린이캠프 개최
창신동 청소년공부방 친구네 운영
- 2009-11년 육아사랑방 운영 (마포구 성산 제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운영)
- 2012년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작, 제7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 2013년 구립 푸른숲 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14년 이경란 사무총장 취임, 제8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구립 산마루 어린이집 위탁 운영
성남꿈나무 지역아동센터 부설기관 운영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위기의 사회, 공동체와 성장' 개최
- 2015년 협동조합 법제화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33곳, 일반협동조합 2곳
- 2016년 제9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 2017년 정병호(이사장), 양용준, 이말순, 황윤옥 공동대표 취임
공동육아 컨설팅사업단 발족
서울시 '마포구 마을방과후 체계구축 사업'
- 2018년 제10회 공동육아한마당 개최
해송-공동육아운동 40주년 서울시와 '함께 크는 우리, 더불어 콘서트' 개최
저소득기금을 공동육아어린이운동기금으로 확대
- 2019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
구립 신길햇살아이파크어린이집 위탁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친구랑' 위탁 운영
`공동육아어린이집(조합형, 국공립, 민간) 81곳, 조합형 초등방과후 20곳, 지역아동센터 9곳(부설기관 2곳 포함), 대안학교 1곳, 우리동네키움센터 1곳
회원수 : 부모 약 1,910가구, 교사 580여명, 어린이 2,900명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주요사업

공동육아어린이집 확산

- 조합형 어린이집 설립 및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모델링 및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네트워크 구축

가정양육 어린이를 위한 품앗이 공동육아 지원과 확산

- 품앗이 공동육아 활성화 컨설팅
- 각 지역 품앗이 공동육아 자문

초등돌봄과 대안교육

- 지역공동체학교네트워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 지역아동센터
- 조합형 초등방과후 돌봄 - 생활형 마을방과후
- 온종일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대안초등학교 지원
-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공동육아교육연구원(교육센터/연구소)

- 공동육아 현장학교 운영 - 공동육아교사 자격과정/재교육
- 부모교육
- 시민교육
- 교육과정 연구
- 공동체적 보육운동 연구

정책활동

- 보육/교육정책 제안
- 연대활동

컨설팅사업

- 공동육아 컨설팅
-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컨설팅
- 품앗이 돌봄공동체 컨설팅

출판/온라인사업

- 계간 『공동육아』 발간
- 출판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

회원연대활동

- 공동육아한마당

공동육아 컨설팅사업단

컨설팅 영역

-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준비모임 컨설팅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비회원 대상 조직(교육) 진단 컨설팅
-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운영 컨설팅
- 공동육아활성화사업관련 (공동육아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 상담, 교육, 컨설팅, 컨설팅(위탁)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 초등과정 컨설팅
 - 지역아동센터 교육/운영 컨설팅
 - 협동조합형 생활방과후 설립/운영컨설팅
 - 마을방과후 설립/운영컨설팅

컨설팅 주제

- 조직의 사명/비전 세우기 워크숍
- 조직진단 워크숍
- 조직의 민주적 운영, 민주적 회의운영을 위한 워크숍
- 조직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을 위한 워크숍
- 초등돌봄 관련 사업영역 개발 워크숍
- 영유아·초등 교육 및 보육기관 교사교육과 교육활동 지원

컨설팅 과정



소속 컨설턴트

이송지(단장), 김경태, 김미애, 김미영, 김수정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

교사성장체계

- '교사교육'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타율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독려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를 말한다.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 내용

- 단계별 교육(현장학교): 기초과정(1단계), 심화과정(2단계), 전문과정(3단계)
- 개방형 교육: 교사대회(여름·겨울), 단기교육 및 특강, 학습소모임(세시와 한해 흐름, 놀이와 노래, 생태나들이, 교육철학, 성교육 등)
- 직무교육: 신입교사교육, 대표교사교육, 영양교사교육

구분	[기초과정](1단계)	[심화과정](2단계)	[전문과정](3단계)
일정	매년 1회 또는 2회	매년 또는 격년	2020년 예정(2~3년 마다)
대상	신입교사, 일반인, 부모	[기초과정]을 수료한 경력 2~4년차 교사	[심화과정]을 수료한 경력 6~8년차 교사
기간	3개월 과정 주 1회 또는 2회 (평일, 주말)	1년 과정 월 2회(평일, 주말)	1년 과정 월 2회(평일, 주말)
인원	25~30명 내외	25명 내외	20명 내외
진행 방식	강의, 담금질, 현장연수	강의, 워크숍, 학습소모임과 연결한 팀티칭, 교육사례 발표	강의, 토론, 팀별 주제연구, 현장방문, 주제연구발표
교육 내용	공동육아의 기초 공동육아 교육이론 공동육아 교육실제	공동육아교육과정, 하루흐름의 의미 세시와 한해 흐름 생태나들이 놀이와 노래 장애아통합교육 표현예술교육 교육활동의 구성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이해 및 재구성 (매해 주제를 정해 강의 구성)
목적	공동육아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론적 기초 및 교육과정 실제 습득	교육활동의 실재를 직접 경험을 통해 관찰, 연구, 숙달과정을 거치며 공동육아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심화함	공동육아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교육전문가로 성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선언

1. 나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이다.
2. 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킨다.
3. 나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믿으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4. 나는 동료에게 서로의 성장을 돕는 힘이 된다.
5. 나는 살아 움직이고 실천하는 교사회를 만든다.
6. 나는 배움을 앞에, 앎을 삶에 일치시킨다.
7. 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한다.
8. 나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9. 나는 육아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는다.
10. 나는 삶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간다.

2007년 1월 27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 행복선언

1. 마음껏 신나게 놀고 나면 행복해요.
놀 곳과 놀 시간을 주세요.
2. 포근하게 안아주면 행복해요.
많이많이 안아 주세요.
3.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 행복해요.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세요.
4.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
좋은 먹을거리를 주세요.
5.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해요.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세요.
6. 어른들이 기다려 줄 때 행복해요.
잘 못하고 느려도 기다려 주세요.
7.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8. 제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요.
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어른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모두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10.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권리선언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모두들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미래도 희망도 없다. 골목마다 넘치던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어느 새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워 부모 되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성 역시 가정에만 머물기를 거부하고 사회참여를 의무와 권리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여성에게 사회참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육도 떠맡기고 모른 체 했다.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뒤흠리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잘 키워 주기를 바라기는커녕 그냥 안전하게 맡아만 줄 곳조차도 찾기 어렵다. 혹 있다 해도 어느 곳은 너무 비싸고 어느 곳은 너무 멀고 어느 곳은 너무 열악하다. 결국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부모도 생기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부모들은 불안을 안은 채 아이들을 미흡한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교사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이다. 열악한 시설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아가며 장시간 많은 아이들을 돌보노라면 몸도 마음도 지레 지쳐 버리기 일쑤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되려면 부모와 교사와 국가가 한 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키워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건에서 이러한 보육을 바란다는 건 어림없는 욕심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할까? 지금 당장 우리 사회와 국가가 힘을 쏟는다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와 교사와 부모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보육권리 선언(어린이)

날마다 햇빛과 바람, 물, 흙 속에서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매일 나를 안아주고, 나와 눈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친구(선생님)들을 충분히 주세요.

따뜻한 간식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 조금 다른 얼굴, 다른 말, 다른 나이의 친구들과도 함께 놀 수 있게 해 주세요.

딱 짜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졸 세우지 말아 주세요.

여자와 남자를 옷과 놀이와 말로 구별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똑같은 옷과 가방과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글자와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익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화난 얼굴, 노여운 목소리, 무서운 매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 보육권리 선언(교사)

안정된 보육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 주세요.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세요.

교사들의 적절한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부모들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보육권리 선언(부모)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좋은 보육시설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주세요.

바람직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와 사회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사들과 늘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아보육, 야간보육, 장애통합보육 같은 다양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2004년 10월 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제 15차 공동육아포럼
모두가 말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함께 책임지는 회의문화

펴낸곳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0길 5 2층
전 화 T. 02-323-0520 F. 02-323-1695
누리집 <http://www.gongdong.or.kr>
이메일 gongdong@gongdong.or.kr

© 본 자료집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자료이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와 전제·배포를 금하며, 내부 교육용으로만 사용합니다.